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 아십니까

국외재단,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 증보 발간

1910년 경주군 주임서기로 부임한 기무라 시즈오(本村靜雄)는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문을 받는다. 석굴암 전체를 해체해 경성으로 옮기라는 지시였다. 기무라 시즈오는 ‘유적은 원래장소에 있어야 역사적 증빙이 되며 총독부의 명령은 이를 무시하는 폭명(暴命)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무시했다. 결국 지역의 부정적 여론과 관계 기관들의 입장 차이 그리고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계획 자체는 무산됐다. 이후 석굴암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해 시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석굴 안에 있던 불상 2구와 소형 탑 등이 없어지는 수난을 겪었다.



일제기 문화재 피해 사례를 조사한 **황수영 박사**(사진 왼쪽)와 42년 만에 증보·발간된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故 황수영 박사 1973년 발간
누락 공문자료·도판·해제 추가
수석사 벽화로 호류지 복원 실험
“민족 역사문화 최대 모욕·약탈”

국외재단은 광복 70주년 및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민간단체인 한국·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 연합회의(이하 연합회의)와 함께 **故 황수영 박사**(1918~2011) 박사의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를 증보·발간하였다.

국외재단은 42년 만에 증보·발간한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는 황수영 박사가 문헌을 편집·기록한 자료집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인용 문헌의 원문을 바탕으로 앞뒤 내용을 폭넓게 번역·수록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도판과 전문 연구자의 해제를 추가한 것도 증보판의 큰 특징이다.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경주 석굴암의 모습. 일제는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자료집은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관련 법령과 행정에 관한 자료부터 고분 유물, 도자, 조각, 전적, 회화, 석조물, 공예 등 문화재 전 분야에 걸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전체 10장 190항목에 걸쳐 폭넓게 실고 있다.

이 자료들은 고분과 유적의 도굴에 따른 유물 반출, 개인 수집가의 매매와 기관에 의한 문화재 유출 및 조선총독부에 의한 유물 파괴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의 수석사 벽화에 대한 실험이다. 이 부분에 대해 황수영 박사는 “일본 호류지 벽화 보존방법 수립을 위한 것으로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요 약탈”이라고 간략히 적고 있다.

자료집에 추가된 해제에 따르면 수석사 벽화에 대한 일제의 관련 공문으로 △1939년 조선학무국장이 아미나카 상회 사장에게 수석사 대웅전 벽화 보존 의뢰 스우 매하라 스에지가 후지타 료사쿠에 보낸 서간문에서 벽화 전사 기술 문의 △1939년 스기야마 신조가 학무국장에 보낸 복명서

등이 확인됐다. 특히 스기야마의 복명서에는 수석사 대웅전을 수리하던 중 고려시대 벽화를 발견했고, 이를 호류지 벽화의 보존에 적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개심사, 무위사 벽화에 시험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현재 일본 오쿠라문화재단에 소장된 ‘이천오층석탑’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예이다. 이 탑은 본래 이전 항로 앞에 있었으나 시정(施政)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출품에 위해 조선총독부박물관 앞뜰로 옮겨졌다가 일본으로 압도됐다. 일본의 사립 미술관인 오쿠라수코칸의 양도 요청을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해 반출된 것이다.

이번 자료집 증보에 대해 국외재단은 “황수영 박사의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는 목차 분류와 수기(手記)로 이뤄져 대중적 접근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의 문화재가 어떤 수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서산불자 “미륵불 돌려달라”

호암미술관 향의방문, 반환촉구 결의문도 발표

서산 해미면 지역 불자들이 용인 호암 미술관을 방문해 미륵불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산주지협의회 회장 도신 스님, 김보희·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원, 해미면 주민들은 8월 13일 호암미술관을 방문해 미륵불을 친견하고 환수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

은 반환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본연의 가치가 있다. 호암미술관 측은 공공기능도 있는 만큼 선의의 반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호암미술관 측은 소장 미륵불이 해미면 산수리 미륵불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들며 반환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우리말로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

꼬마평화도서관, 9월 6일 어린이포교 ‘평화머니’ 개최

“만약 부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가르침을 전하셨을까?” 라는 동심 어린 발상으로 어린이 포교에 다가서는 자리가 열린다. 순수 우리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평화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꼬마평화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하 꼬마평화도서관)과 오라차차영세종립코리야는 9월 6일 오후 3시 서울 방대동에 위치한 사찰음식전문점 ‘마지’ 2층 갤러리서 ‘평화나랑이야기-평화머니’를 개최한다. ‘평화머니?’는 ‘평화가 무엇이니?’란 말의 줄임이다.

이날 행사는 부처님 평화사상을 큰 주제로 △평화이야기 바람 △노래바람 ‘같이 살자’ △평화꾸러미-매듭 엮기 등 진행된다. 메인 프로그램 ‘평화이야기 바람’은 변산공동체학교 설립자 윤구병 작가와 꼬마평화도서관 번역주 경영살림연구가가 어린이 및 학부모와 함께 40분 간 평화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는 토크콘서

트다.

이밖에도 자화자찬의 ‘같이 살자’ 노래를 배운 뒤 참가자 모두의 협연 공연이 진행될 뿐 아니라 우리 전통 색 5가지를 가지고 평화 매듭 엮기 등도 진행된다. 꼬마평화도서관은 “불교는 살인마조차 참회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보듬어내는 종교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평화이며 원효의 화쟁 정신”이라며 “이 가르침을 순수한 우리말로써 전하며 아이들의 깨끗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의 드레스코드는 ‘노랑’이다. 이에 대해 번역주 연구가는 “노랑은 우리말 ‘누리’와 ‘안전’을 뜻한다. 이 누리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은 어린이와 학부모 40쌍으로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전문점 마지, 미foot아카데미, 보리출판사가 후원한다. 문의 (010)9272-4459 **박아름 기자**

종평위, 첫 ‘위촉직’ 4인 임명

조계종 8월 19일 위촉식 개최... 증오범죄방지법 제도화 추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구성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한국 사회 종교평화 정착을 위해 정진해나갈 예정이다.

2년여 공석이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이하 종평위) 위원장 자리에 지난 6월 만당 스님이 임명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평위 위촉직 위원 4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종평위 사상 첫 임명된 위촉직 임기는 2년이다. 위촉직 위원에는 수원아리따문화원장 송탁 스님, 이병두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삼경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현재 위촉직 1석은 공석인 상태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니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위촉직 송탁 스님은 “이웃종교 라는 말은 그야말로 서로 이웃이 되어야한다는 말이다. 진짜 이웃처럼 사소한 것을 함께 나눌 것”이라며 “불교계 얘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종교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편한 대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종평위가 나서 증오범죄방지법 제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미국은 종교·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평위 위촉직 위원 4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방 범죄와 관련해 갈등 해소를 위한 법이 잘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종교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유발되지 않도록 증오범죄법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장 만당 스님은 “적극 추진하

겠다”고 응답했다. 만당 스님은 6월 22일 위원장 임명식에서도 “특정 종교에 대한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종단 차원의 법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교평화 시민모임 ‘사이좋게’ 창립

8월 27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주어서지 등 갈등 해결 모색

모든 종교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는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반복해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도 뿌리내린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종교평화시민모임-사이좋게’(이하 사이좋게, 공동대표 도법)는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W스테이지서 창립 모임을 갖고, 향후 격월 종교평화 포럼을 개최한다. 사이좋게는 여주 주어서지를 둘러싼 불교와 천주교 갈등 등 대표적 종교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시작된 단체다.

사이좋게는 “주어서지 뿐 아니라 서소문과 해미읍성 등 전국적으로 종교 갈등의 불씨가 산재해있다”며 “종교간 갈등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향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대안을 공동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행사는 3명의 ‘마중물’ 강연 △박문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위원장 ‘갈등을 넘어 평화로, 종교평화의 씨뿌리기’ △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종교평화의 오래된 미래 주어서지에서 배운다’ △오강남 경계너머아하 이사장 ‘붓다와 예수의 제자들, 종교평화성지를 견다’ 등 진행될 후 대화마당이 이어진다. 대화마당에서는 도법 스님 여는 말씀 후 전체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참여는 종교 평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02)3210-0108 **박아름 기자**

각종 점안의식의 작법절차를 집대성!

해사 편집/사록배판/스프링 제본
312쪽/값 30,000원

점안의식집

전래되는 의식집들을 비교분석하고 보완하여 여법한 점안의식을 완성!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불상이운, 패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송법 등 수록

달마도와 선묵화의 대가 범주스님의 삶과 수행의 여정!

나를 찾아 붓길을 따라서

선묵일여, 선화불이의 세계를 추구해 온 범주스님의 삶과 수행, 예술세계를 담은 회고록.

출가 50년, 선묵화 40년!
선화를 화두 삼아 수행해 온 구도의 여정을 글과 그림을 통해 만나다.

범주 글, 그림/사록배판형/286쪽/울컬리/20,000원

도시명	전시 기간	장 소
서울전	8/29(토) ~ 9/8(화)	조계사 나무갤러리
울산전	9/10(목) ~ 9/23(수)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
부산전	9/24(목) ~ 9/30(수)	부산시민공원갤러리
대구전	10/1(목) ~ 10/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일산전	11/9(월) ~ 11/22(일)	일산동국대학병원갤러리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범주스님 선묵 회고전 일정

회고록 출판기념회
일시 2015년 8월 29일 (토) 오후 4:00
장소 조계종 총무원 지하공연장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